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펀드(주식)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전환형 투자신탁1호(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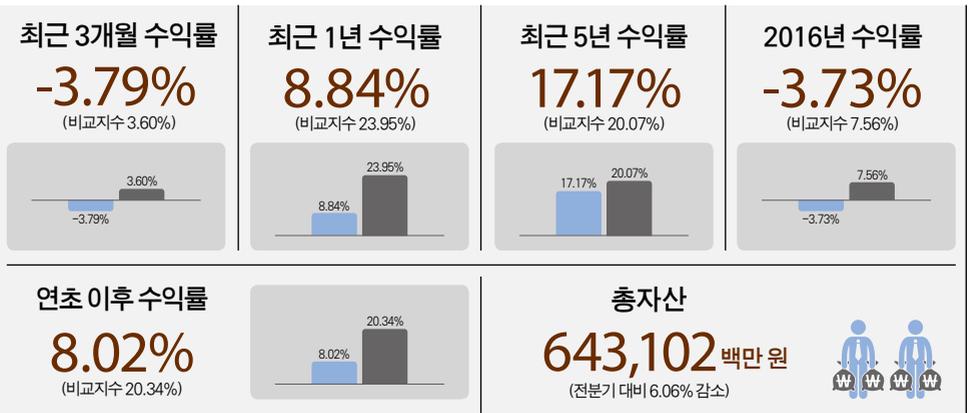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적 연금 상품입니다.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에 투자하는 가치투자를 실천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기업의 내재 가치에만 주목하여 장기 투자합니다.

리스크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수익을 지향합니다(Low Risk Middle Return).

최초 설정일 | 2007.03.19 | 운용 기간 | 2017.06.19~2017.09.18



위 수익률은 거치식 투자를 가정하였으며 적립식 등으로 투자한 경우 표시된 수익률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수익률은 판매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펀드의 투자 위험 등급 분류 방식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2016년 7월 2일부터 펀드의 투자 위험 등급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래 표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에 따라 위험 등급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펀드의 실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위험 등급을 새로 정했습니다. 10년투자 연금증권전환형 투자신탁1호(주식)의 위험 등급은 새롭게 적용하는 6단계 등급 체계 중 4등급(보통 위험)에 해당합니다.

등급	매우 높은 위험 (1등급)	높은 위험 (2등급)	다소 높은 위험 (3등급)	보통 위험 (4등급)	낮은 위험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6등급)
3년 수익률 표준편차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10년투자 연금증권전환형 투자신탁1호(주식)의 위험 등급

1이 펀드는 최근 결산일(2017년 3월 18일) 기준 직전 3년간의 주간 수익률 변동을 측정한 연환산 표준편차가 8.85%로 산출되어 6단계 위험 등급 중 **4등급(보통 위험)**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 투자를 통한 실세 금리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면서 보통 수준의 수익률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등급은 매년 결산일을 기준으로 재측정하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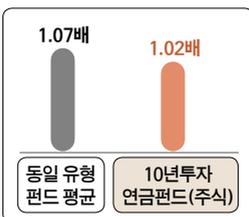
2수익률 표준편차는 투자 기간 동안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크고 값이 작을수록 변동성이 작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PBR과 PER도 확인하세요

한국밸류10년투자 연금펀드(주식)는 장기 가치투자 원칙을 고수하며 가격 부담 없는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합니다. 이는 펀드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주식의 편입 비중을 감안하여 산출한 펀드 PBR과 PER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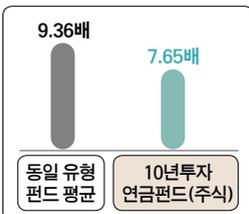
PBR(Price to Book Ratio, 주가순자산비율)이란?

주가가 한 주당 기업 순자산의 몇 배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펀드도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주식의 편입 비중을 감안하여 PBR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펀드의 PBR이 낮을수록 자산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종목을 많이 편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PER(Price to Earnings Ratio, 주가수익비율)이란?

주가가 한 주당 이익금의 몇 배에 거래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펀드도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주식의 편입 비중을 감안하여 PER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펀드의 PER이 낮을수록 수익은 많이 올리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은 종목을 많이 편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PBR = 주가/회계연도 말 예상 순자산
 ※ PER = 주가/12개월 예상 순이익
 ※ 출처 FN스펙트럼(최근 12개월간 월말 평균 / 2016.08~2017.07)
 ※ 동일 유형 펀드 액티브주식일반 공모펀드(적극적 운용을 통해 시장 수익률 초과 달성을 추구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

Vol.42
2017.06.19~
2017.09.18

**경험에서 얻은 교훈,
위기 속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기회**

그동안 쌓은 경험을 통해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빈번한 쏠림 현상 이후 시장은 언제나 소외된 가치에 눈을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주춤거리는 주식시장의 극심한 양극화는 분명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 또한 시작됩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눈과 힘을 더욱 갈고닦겠습니다.

장기 가치투자 대표 운용사
한국투자 밸류자산운용

시작하자!
10년 투자

김동영 자산운용2본부장이 전하는 펀드의 3개월

시장 양극화 극심하지만 '잃지 않는 투자' 원칙 지켜나갈 것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펀드(주식)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분기 주식시장은 그동안의 상승세가 꺾이면서 주춤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20조 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는 국내 증시의 상승 동력이었습니다. 세계경제의 양호한 지표와 함께 글로벌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증시는 7월 중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도하는 등 고점을 넘어서는 상승세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회복한 글로벌 경기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국내 시장

국내 주식시장이 이처럼 주춤한 가장 큰 요인은 북핵 관련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핵 위기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일회성에 그치는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 리스크로 치닫고 있는 점이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북핵 위기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 위기 이후 경기 회복 기간과 진폭은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또한 경기 회복의 소비 기여도와 글로벌 교역량이 현저히 낮아졌고, 달러에 연동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수출입 금액 증가와 감소 폭이 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력은 커졌습니다. 요컨대 경기 회복에 대한 전통적 개념과는 달리 경기 회복에 따른 물량 증가는 미미한 반면, 달러 가격 움직임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며 영향을 미치는 가격 효과 비중은 압도적으로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는 내수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글로벌 경기 호황으로 반도체 기업의 이익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반등세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극심한 양극화 장세 영향으로 수익률 부진

이번 운용 기간 동안 국내 증시는 극심한 양극화 양상을 띠었습니다. 내수 업종인 음식료·유통·건설·통신 업종은 정부의 잇따른 규제 정책 발표로 약세를 보인 반면, IT 및 반도체 장비 업종은 초강세를 보이는 극심한 양극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0년투자 연금펀드(주식)는 이번 분기 수익률 면에서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포트폴리오상 IT·반도체 장비 업종의 부채와 유통·음식료 업종의 높은 비중 때문에 양극화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글로벌 긴축 정책에 따른 신중한 접근 필요

앞으로 주식시장 역시 크게 호전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직전 분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더불어 올 하반기 시작될 대차대조표 정상화(양적 긴축) 움직임은 증시 상승에 부정적 요인으로 꼽힙니다. 201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인상 사이클 효과를 지금까지는 ECB(유럽중앙은행)와 JOB(일본중앙은행)의 양적 완화가 중화시킬 수 있었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이들마저 긴축 사이클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를 둘러싼 환경 변화 가능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미 크게 상승한 자산 가격과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감안한다면 오랜만에 맞이하는 글로벌 금융시장 긴축에 따른 파급효과는 작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년 투자연금펀드(주식)는 극심한 양극화 장세 속에서 기업 본연의 가치에 비해 가격이 하락하여 밸류에이션 매력에 높아진 개별 종목을 지속적으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 호황으로 절정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IT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 업종으로 경기 순환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왔습니다. 극단적인 시장 쏠림 현상 이후에는 반드시 반작용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동안의 투자 경험을 통해 투자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잃지 않는 투자'라는 저희의 투자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투자자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 자산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0년투자 연금펀드(주식)는 원칙을 지키는 신중한 가치투자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자산운용2본부장 김동영

10년투자 연금펀드(주식), 이런 펀드입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펀드 재산을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에 위탁하고, 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가 자산을 취득, 처분하게 하는 **투자신탁**입니다.
- 펀드 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펀드(주식형)**입니다.
- 기존에 설정한 펀드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형 펀드**입니다.
- 하나의 펀드 내에서 투자자 그룹(class)별로 다른 판매 보수와 수수료를 적용하는 **종류형 펀드**입니다.
- 투자자가 원할 때 가입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중도에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입니다.

10년투자 연금펀드(주식)의 판매회사입니다

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증권 | 교보증권, 대신증권, 동부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흥국증권, BNK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보험 |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KDB생명

기타 | 펀드온라인코리아

10년투자 연금펀드(주식) 기본 정보

적용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험 등급: 4등급(보통 위험)

펀드명	금융투자협회 펀드 코드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전환형 투자신탁1호(주식)(모)	66508
클래스 C	AP736
클래스 S-P	AP737
클래스 C-E	BG327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	한국증권금융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한아이티스

- 이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전환형 투자신탁1호(주식)(모)'의 자산운용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신탁업자)인 '한국증권금융'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합니다.
- 투자자의 계좌별 수익률 정보는 판매회사의 HTS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각종 보고서 확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www.koreavalueasset.com
금융투자협회: dis.kofia.or.kr



표로 보는 10년투자 연금펀드(주식)

재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펀드명	구분	전분기 말(2017.06.18)	금분기 말(2017.09.18)	증감률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전환형 투자신탁1호(주식)(모)	자산 총액	684,610	643,102	-6.06
	부채 총액	5,340	6,832	27.94
	순자산 총액	679,269	636,270	-6.33
	기준 가격	1,074.40	1,033.67	-3.79
종류(class)별 기준 가격 현황				
클래스 C	기준 가격	1,024.08	981.34	-4.17
클래스 S-P	기준 가격	1,016.37	975.47	-4.02
클래스 C-E	기준 가격	1,092.89	1,048.64	-4.05

* 기준 가격 투자자가 펀드를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 포함) 수령 시에 적용하는 가격입니다.
기준 가격=(펀드 순자산 총액÷수익증권 총좌수)×1000

기간 수익률

(단위: %p)

펀드명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2017.06.19~ 2017.09.18	2017.03.19~ 2017.09.18	2016.12.19~ 2017.09.18	2016.09.19~ 2017.09.18	2015.09.19~ 2017.09.18	2014.09.19~ 2017.09.18	2012.09.19~ 2017.09.18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전환형 투자신탁1호(주식)(모)	-3.79	5.41	8.41	8.84	3.39	-1.74	17.17
(비교지수 대비 성과)	(-7.39)	(-6.46)	(-10.89)	(-15.11)	(-25.78)	(-22.04)	(-2.90)
비교지수	3.60	11.87	19.30	23.95	29.17	20.30	20.07
종류(class)별 현황							
클래스 C	-4.17	4.61	7.18	7.20	0.26	-6.17	11.05
(비교지수 대비 성과)	(-7.77)	(-7.26)	(-12.12)	(-16.75)	(-28.91)	(-26.47)	(-9.02)
비교지수	3.60	11.87	19.30	23.95	29.17	20.30	20.07
클래스 S-P	-4.02	4.92	7.66	7.84	1.47	-4.46	-
(비교지수 대비 성과)	(-7.62)	(-6.95)	(-11.64)	(-16.11)	(-27.70)	(-24.76)	-
비교지수	3.60	11.87	19.30	23.95	29.17	20.30	-
클래스 C-E	-4.05	4.86	7.57	7.89	-	-	-
(비교지수 대비 성과)	(-7.65)	(-7.01)	(-11.73)	(-16.06)	-	-	-
비교지수	3.60	11.87	19.30	23.95	-	-	-

* **비교지수**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전환형 투자신탁1호(주식)(모)는 지수 변화에 따른 수익률 변화를 볼 수 있도록 비교지수((KOSPI200×90%)+[CD금리×10%])를 사용했습니다.
* 위 수익률은 거시적 투자를 가정하였으며 적립식 등으로 투자한 경우 표시된 수익률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수익률은 판매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수익률은 과거의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익 현황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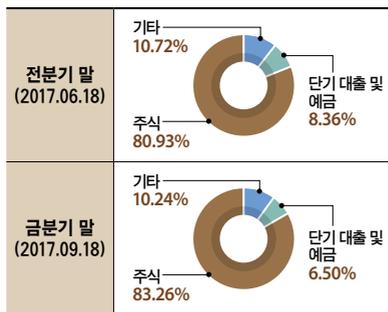
구분	주식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전분기	59,582	300	-7	59,875
금분기	-25,641	359	-8	-25,290

자산 구성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주식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KRW	535,441 (83.26)	41,810 (6.50)	65,851 (10.24)	643,102 (100.00)

() 안의 숫자는 구성 비율로, 총자산 중에서 각각의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주요 자산 보유 현황

1. 주식

(단위: 주, 백만 원, %)

종목명	보유 수량	평가액	비중	비고
SK	240,964	65,663	10.21	-
롯데푸드	57,394	35,355	5.49	4.19
NAVER	38,437	30,019	4.66	-
한국토지신탁	9,309,319	29,557	4.59	3.69
SK네트웍스	3,801,180	27,787	4.32	1.53
엔에스쇼핑	1,675,086	25,126	3.90	4.97
SK이노베이션	100,783	19,250	2.99	-
에이티젠	571,103	19,246	2.99	4.98
NICE	1,155,102	17,442	2.71	3.05
코리아리	1,455,419	16,956	2.63	1.21
제이준코스메틱	2,510,471	16,544	2.57	3.75
한국콜마홀딩스	384,147	12,715	1.97	2.29
유진기업	2,215,301	12,605	1.96	2.94

종목명	보유 수량	평가액	비중	비고
동아타이어	514,941	11,869	1.84	2.17
넥센	1,400,840	11,739	1.82	2.75
NPC	1,505,239	9,287	1.44	4.10
선진	558,429	9,102	1.41	3.43
한국알콜	1,087,136	9,012	1.40	5.03
S&T모티브	163,371	7,670	1.19	1.12
삼영무역	354,473	6,186	0.96	2.15
서부T&D	463,101	5,812	0.90	1.35
NHN벅스	540,971	5,437	0.84	3.65
아이디스홀딩스	289,521	3,706	0.57	2.80
KISCO홀딩스	43,648	3,199	0.49	1.18
가온미디어	172,939	1,911	0.29	1.29
서부티엔디유상(보)	45,567	572	0.08	1.33

2. 단기 대출 및 예금

(단위: 백만 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 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비고
콜론	대구은행	2017.09.18	37,497	1.22	2017.09.19	5.83

3. 기타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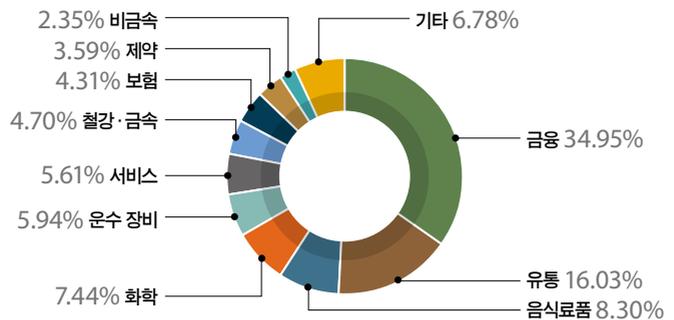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

종류	금액	비고
기타 자산	63,202	9.83

* **비중** (평가액÷총자산)×100 **비고** (보유주수÷총발행주수)×100
* 펀드 자산(주식, 채권, 기타 자산 포함) 총액에서 상위 10개 종목, 자산 총액의 5% 초과 보유 종목 및 발행 주식 총수의 1% 초과 종목 보유 내역을 보여줍니다.
* 보다 상세한 투자 대상 자산 내역은 금융투자협회 전자 공시 사이트의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단, 협회 전자 공시 사이트에서 조회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본 자산운용보고서와 작성 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투자 비중

* 이 그래프는 기준일 현재 이 펀드에 편입되어 있는 주식의 업종별 비중을 나타냅니다.



Comment! 금융업, 유통업 비중 늘고 서비스업, 보험업 비중 줄어

이번 분기 10년투자 연금펀드(주식) 포트폴리오의 업종별 투자 비중을 직전 분기와 비교해보면 금융업과 유통업 비중은 높아진 반면 서비스업과 보험업 비중은 낮아졌습니다. 금융업은 직전 분기 7.96%에서 이번 분기 34.95%로, 유통업은 14.96%에서 16.03%로 각각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서비스업은 22.94%에서 5.61%로, 보험업은 10.28%에서 4.31%로 각각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투자 비중 상위 종목에는 SK이노베이션과 NICE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 지급 현황

(단위: 백만 원, %)

펀드명	구분	전분기 말 (2017.06.18)		금분기 말 (2017.09.18)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전환형 투자신탁1호(주식)(모)	자산운용회사	891.18	0.14	897.21	0.14	
	판매회사	클래스 C	1,563.16	0.24	1,573.69	0.24
		클래스 S-P	1.71	0.09	1.66	0.09
		클래스 C-E	0.01	0.12	0.11	0.12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신탁업자)	49.51	0.01	49.84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23.10	0.00	23.26	0.00	
	보수 합계	2,528.68	0.59	2,545.77	0.59	
	매매 중개 수수료	단순 매매 중개 수수료	169.88	0.03	131.54	0.02
		조사 분석 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380.50	0.06	288.48	0.04
		합계	550.39	0.08	420.02	0.06
증권거래세		895.55	0.14	580.76	0.09	

* **비율** 펀드의 순자산 총액(기간 평균) 대비 비율
* **기타 비용**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매매 중개 수수료는 제외된 것입니다.

총보수비용 비율

(단위: 연 환산, %)

펀드명	구분	총보수비용 비율	매매 중개 수수료 비율	합계
한국밸류 10년투자 연금증권전환형 투자신탁1호(주식)(모)	전분기	0.00	0.33	0.33
	금분기	0.00	0.25	0.25
종류(class)별 현황				
클래스 C	전분기	1.54	-	1.54
	금분기	1.54	-	1.54
클래스 S-P	전분기	0.94	-	0.94
	금분기	0.94	-	0.94
클래스 C-E	전분기	1.03	-	1.03
	금분기	1.05	-	1.05

* **총보수비용 비율(Total Expense Ratio)** 운용 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 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 잔액(보수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 해당 운용 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보수비용 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 중개 수수료 비율** 매매 중개 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 잔액(보수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 해당 운용 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 중개 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매매 주식 규모 및 회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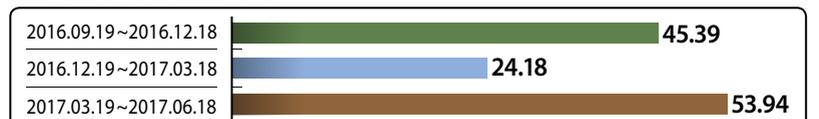
(단위: 주, 백만 원, %)

매수		매도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해당 기간	연 환산
7,411,336	199,343	5,466,521	193,606	35.79	141.98

* **매매회전율** 주식 매매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운용 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 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 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최근 3분기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



* **매매회전율**이 높을 경우 매매 거래 수수료(0.1% 내외) 및 증권거래세(매도 시 0.3%) 발생으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는 펀드 비용이 증가합니다.

Comment! 이번 분기 매매회전율 35.79%로 직전 분기보다 낮아

이번 분기 10년투자 연금펀드(주식)의 매매회전율은 35.79%로 직전 분기 53.94%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직전 분기 주가가 많이 올라 밸류에이션 매력 떨어지는 종목을 매도하면서 일시적으로 매매회전율이 높아졌으나, 이번 분기에는 주식 매도 금액이 줄어들면서 매매회전율이 낮아졌습니다. 주식 매수 금액은 직전 분기보다 소폭 줄었는데, 양극화 현상 속에서 주가가 하락한 우량 종목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세계경제 불황 기간 우리나라 펀드 투자자는 어떻게 변했나?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유로존 재정 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불황 기간 동안 우리나라 펀드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본 조사 결과를 소개합니다.

· 자료 '우리나라 투자자의 펀드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펀드 투자자 조사 설문 자료를 바탕으로'(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펀드 투자 규모는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펀드 설정액은 금융 위기 이후 2009~2011년 약 60조 원 이상 감소해 298조 원까지 떨어졌으나 2012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금융 위기와 유로존 재정 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불황 기간 동안 우리나라 개인 펀드 투자자들은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요?

1 금융 위기 겪으며 안정형, 안정 추구형 성향 높아져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펀드 투자자 조사'의 연도별 펀드 투자 현황을 보면 2012년까지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펀드 투자를 한다고 대답하였으나 2013년 38.7%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28.7%까지 떨어졌고,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16년에는 전체 응답자의 32.4%가 현재 펀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펀드 투자자들의 위험 추구 성향은 금융 위기 이전인 2007년과 이후인 2011년,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6년 사이에 매우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2007년 조사에서는 적극 투자형이라고 답한 투자자가 3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2011년과 2016년 조사에서는 안정 추구형이라고 답한 투자자가 크게 늘어 각각 36.7%, 42.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금융 위기 이전 시기에는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낮은 투자보다는 조금 위험하더라도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투자를 선호했으나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투자자들이 투자위험에 민감해졌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07년	2011년	2016년
안정형	24.9	38.6	33.3
안정 추구형	27.4	36.7	42.2
위험 중립형	27.4	12.3	14.2
적극 투자형	38.8	9.1	7.4
공격 투자형	8.9	3.3	2.9

주) 2007년 조사에서는 위험 추구 성향 질문을 네가지로 분류해 안정형과 안정 추구형을 하나로 묶음.

2 나이, 직업, 위험 추구 성향의 영향력 등 금융 위기 거치며 변화

또한 나이, 직업, 위험 추구 성향이 펀드 투자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금융 위기 기간이 포함된 2007~2011년에 크게 변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령자일수록 펀드 투자를 안 할 것이라는 통념이 있는데, 이는 2007년 결과에서만 그렇게 나타났을 뿐 2011년부터는 연령과 펀드 투자 여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에는 직업이 펀드 투자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1년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학생, 주부 등보다는 펀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2016년에는 대부분의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학생이나 주부 등보다 펀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2007년과 2011년, 2016년 모두에서 위험성향이 안정적인 사람보다는 위험에 중립적, 적극적, 공격적인 투자자가 펀드 투자를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적극 투자형과 공격 투자형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으며, 위험 중립형은 2007~2011년에 상승했다가 2011~2016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의 투자 성향이 위험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리고 붙이고 모아두재! 뉴스스크랩북

IRP를 활용한 절세 꿀팁

공무원과 교사, 자영업자 등 더 많은 사람에게 문이 활짝 열린 대표적인 절세 상품 'IRP'를 활용한 세금 절약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01 IRP 가입 대상 확대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과 별도로 개인이 퇴직금 계좌를 만들어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는 금융 상품으로 세액공제 등 절세 혜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가입 자격이 퇴직 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등으로 제한되었습

니다. 하지만 올해 7월 26일부터는 자영업자나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RP의 대표적 혜택은 역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입니다. IRP 가입 시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연금저축으로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IRP에 가입하여 추가로 300만 원을 납입하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간 소득 구간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총급여(근로자)	종합소득금액	연금저축		IRP
5,500만원 이하	4,000만 원 이하	70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16.5%
5,500만~1억2,000만 원 이하	4,000만~1억 원 이하	70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13.2%
1억2,000만 원 초과	1억 원 초과	700만 원	300만 원	700만 원	13.2%

02 연 700만 원 한도 넘으면 다음 해로 넘겨 세액공제 가능

만약 연 700만 원인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서 IRP에 납입했다면 그 다음 해의 연금 납

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올해 IRP에 1,0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올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남은 300만 원은 내년으로 이월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한꺼번에 넣어두었다가 나누어서 절세 혜택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03 세액공제 한도 넘은 적립금도 소득세 절감 효과

IRP의 절세 혜택은 세액공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간 700만 원(연금저축과 합산)까지의 적립금에 대해서만 절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IRP에는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이 중 700만 원(연금저축과 합산)을 초과하여 납입한 1,1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소득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IRP 적립금을 운용해서 생기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아닌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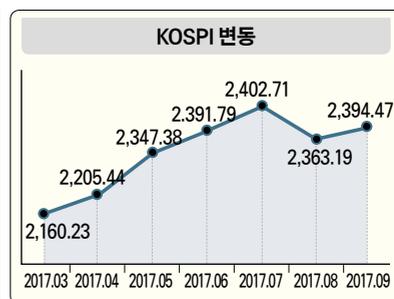
04 퇴직금을 IRP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소득세 줄어

퇴직한 후 받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여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소득세를 30%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금의 규모와 근속 기간에 따라 최고 28.6%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IRP 계좌로 이체한 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주요 지표로 본 금융시장(2017.03~2017.09)



· 자료 한국은행(KOSPI-증가, 원/달러 환율-평균 자료)